



## 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

심의관 정홍근, 사무관 김동빈  
(044-200-2132, 2134)

### 이낙연 국무총리, 탄자니아 공식방문 마무리(7.23)

- △ 「마구폴리」 대통령 예방 △한-탄자니아 비즈니스 포럼 등 계기,  
우리 기업의 탄자니아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-

- 이낙연 국무총리는 탄자니아 체재 마지막날인 7.23(월) △ 「존 마구폴리」 탄자니아 대통령 예방 △한-탄자니아 비즈니스포럼 참석 등 일정을 가졌습니다.
- 「존 마구폴리」 대통령 예방에서는 한-탄자니아 실질협력관계 증진 방안이 중점 협의되었습니다. 「존 마구폴리」대통령은 자신이 건설부장관직에 오래 재직한 적이 있어 한국기업의 우수성을 잘 안다고 하면서, 한국기업이 탄자니아 표준궤 철도사업(SGR), 빅토리아호 및 탕가니카호의 노후선박수리 및 신규선박건조사업, 빅토리아호 교량 건설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
- 이 총리는 탄자니아의 국가발전 과정에서 한국이 동참할 수 있어 큰 영광이라고 하면서, 탄자니아 주요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적극 참여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.
- 탄자니아 대통령 예방 직후에 탄자니아 대통령실에서 이 총리와 「존 마구폴리」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, 한국의 GS건설과 탄자니아 도로공사(Tanroads)간의 「신 셸린더 교량 공사계약」 체결식이 개최되었습니다.

- 약 1km 길이의 이 교량은 다레살람 시내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 건설될 예정이며, 총 사업비 1억 5백만불 중 우리나라 경제개발협력기금(EDCF)이 9,100만불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. 이 교량은 다레살람의 교통 개선과 탄자니아의 경제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, 아울러 한-탄자니아 우호관계를 상징하는 우호의 다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- 7.23(월) 오전 세레나 호텔에서 개최된 **한-탄자니아 비즈니스 포럼**에는 이 총리와 「**마잘리와**」 탄자니아 총리를 비롯한 양국 정부인사와 우리 기업 16개사 50여명, 탄자니아 기업 160여개사 200여명 등 총 300여명 가량이 참석했습니다.
  - 이 총리는 기초연설을 통해 탄자니아가 안정된 정치체제 아래 7%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고, 한국이 **호혜적 협력 파트너**로서 탄자니아의 국가개발전략 2025의 실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.
    - 특히, 이 총리는 국민의 75%가 모바일을 이용하고, GDP의 47%가 모바일에서 거래되는 **탄자니아의 넓은 모바일 저변**을 언급하고, 한국 기업의 발전된 IT 기술과 결합한다면 매우 큰 효과를 낼 것이라며 **양국간 IT분야의 협력 강화**를 기대했습니다.
  - 이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△페이링크-탄자니아 국영통신사(TTCL)간 **모바일 결제사업 프로젝트 양해각서(MOU)** △영산 글로벌-탄자니아 교통대학간 **운전면허 교육 및 시험장 운영에 대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(MOU)**가 체결되었고, 기업의 사회적 책임(CSR) 행사로 **의료진단기기 기증식**이 진행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.
    - 특히 국내 IT·혁신기업 총 12개사가 참여한 **1:1 비즈니스 파트너십 상담회**에서는 탄자니아측 60여개 기업들과 총 70여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실시되는 등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자니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.

- 이 총리와 아프리카·중동 순방 대표단은 탄자니아 공식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7.23(월) 밤 오만 무스카트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, 「알룸히」 석유가스장관, 「알하르씨」 주한오만대사 등 정부인사로부터 영접을 받았습니다.
  
- 한국 국무총리로서는 6년만에 오만을 방문한 이 총리는 「아싸드」 대외관계 부총리와의 양자회담 및 공식오찬, 한-오만 비즈니스 포럼, 오만 경제각료 합동 접견, 동포만찬간담회 등의 공식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.